

[DOI] <http://dx.doi.org/10.21487/jrm.2018.5.3.1.1>

【연구논문】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의 다양성: 최순실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이 성 우*.이 호 준**.이 병 근***

논문요약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언론의 최순실 사건에 대한 보도행태의 다양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정치에서 언론은 객관적 정보전달자라기 보다 정치세력과 함께 연관된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론은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으로서 이익과 연관된 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언론 중 가장 보수적이며 새누리당과 연계된 편향성을 가진 언론은 SBS 로 나타났다. 가장 진보적이며 민주당 편향성을 갖는 언론은 한겨레와 JTBC이다. 그리고 각 사건에 대응하는 보수언론의 패턴은 예상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의 여론 흐름을 쫓아서 보도편향을 바꾼 언론도 등장하였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언론으로 인식되어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각기 다른 보도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각 언론사들이 정치적 연관성과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도행태를 정한다는 것을 일정하게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언론의 보도행태와 정치세력과 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제어 : 언론, 정치적 스캔들, 텍스트 마이닝, 보도행태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 woo9505@korea.ac.kr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학부생

***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학부생

I. 서론

본 논문은 최순실 사건에 대한 한국의 주요 언론의 보도 행태와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9개 중앙언론사들의 기사를 대상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기법을 이용하여 그 보도의 편향성과 사건의 진행과정에 따라 그 보도편향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에 대한 추정을 진행하였다.

뉴스는 어떤 언론사가 보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언론사가 처한 환경, 조직 구조, 주요 구성원들의 정치적 믿음, 보도관행 등의 많은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언론사마다 뉴스가 다른 논조와 관점에서 생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언론사마다 각자의 조건 속에서 해당 언론만의 프레임(frame)이 있다. 이 프레임이 지속되기도 하고, 이슈와 시기에 따라 변화가 되기도 한다. 그 변화는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언론현실에서 한국의 언론은 저마다 공정한 보도를 이야기하지만, 정파적인 구분이 명확한 언론들이 여론을 주도한다. 그리고 광고매출을 중심으로 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언론은 자본의 영향력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최순실 사건은 한국 정치에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적 지형은 보수우위에서 진보우위로 변화되었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국민 여론에 맞추어 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보도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 보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언론들이 매우 다양한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보조적 지표로서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두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한국언론의 최순실 사건에 대한 보도행태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진행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최근 각광받는 빅데이터 분석방법 중 하나로서 향후 정치학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의 필요성과 그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II. 기존연구검토와 가설

1. 기존연구검토

언론이 가지는 태도의 다양성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해당 사회가 얼마나 가치와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얼마나 성숙하게 받아들이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기도 하다.

언론들이 특정이슈나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다. 언론은 저마다 뉴스 가치에 대한 전문적 인식, 조직과 기술적 틀, 수용자 혹은 정기적인 독자에 대한 감각 등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합쳐져 신문의 매우 상이한 ‘사회적 성격(Social personalities)’을 만들어낸다(Hall et al 1978, 60).

언론의 다양한 보도 행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우선, 정치권력과 연관성에 대한 입장이 있다. 언론이란 본질적으로 체제의 산물이며 권력 의지의 이익에 봉사하는 도구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Altschull 1984). 이와 연관되어 언론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과 연계를 가진다는 설명도 있다. 언론은 정치권력과 직업적인 연계를 가진다. 뉴스의 주 정보원으로 정치권력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연계는 오래 지속되어왔고,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Hallin 1994). 윤영철(2000)은 언론의 산물은 권력엘리트와 언론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나며, 언론은 지배권력의 이해를 반영하는 이념적 시각을 전파함으로써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고 설명한다. 언론의 위력은 언론 그 자체의 힘보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치권력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 그 힘은 배가된다. 이 시각은 언론의 소유여부보다 언론이 그 사회의 권력엘리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주목한다.

언론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Hall 1979).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언론은 타 계급과 집단의 생활을 인지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분열에서 합의로 가는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의 다원화되고 복잡한 면들을 하나의 집합적 표현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회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창출하기도 한다. 매체경제력 지배,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매체인력에 대한

통제, 이 세 가치를 기반으로 성립되는 언론권력은 수구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김승수 2003, 44).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측면을 더 강조하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언론의 소유구조에 주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그 공적기능이 있음에도 하나의 산업이다. 언론의 소유구조가 언론의 생산물 즉 뉴스의 방향, 이슈, 주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는 사유 기업의 형태를 띠며, 이들 언론조직이 생산해내는 산물은 소유주의 이익과 가치,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재생산 할 수 밖에 없다(Curran 1990, 139; McNair 1994, 40). 결국 소유한 자본의 형태, 구조가 뉴스의 편집 방향과 의도 등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언론권력의 원천은 소유독점과 여론지배이다. 언론권력은 시장지배적인 매체를 소유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업, 건설업, 유통업, 제조업, 문화사업 등 다양한 곳에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부 또는 경쟁자를 회유하거나 위협하기도 한다(김승수 2003, 40-41).

결국 언론은 정치권력과 연계성, 자본과의 관계성에 따라 자신들의 생산물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한다.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력과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한다. 언론을 소유한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활용하고, 언론을 통해 정치권력내의 자신들에 우호적인 사람은 적극 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혹할 정도로 비판한 후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쫓아버린다(김승수 2003, 51).

오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의 보수언론은 정당성 없는 독재 권력에 기생하여 살아왔고, 그 결과 보수언론들은 큰 영향력을 형성하였다. 민주화 이후 이 영향력을 활용하여 언론사 스스로의 이익과 사주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90년대 중앙 신문사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신문시장의 70%를 과점하였다. 그 결과,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 모두 언론의 눈치를 보는 또 다른 권력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인터넷 언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현재 언론은 과거와 같은 영광은 누릴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언론기업은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으로 생존하여야 한다.

언론기업은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경제에 불확실성과,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독점 언론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이 환경 속에서 독점 언론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소유구조와 소유권을 더욱 집중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 다른 종류의 대중매체를 소유하는 커뮤니케이션 복합기업화(Cross-media Ownership) 하거나, 둘째, 대중매체와 관련이 없는 대기업이 대중매체를 소유하는 일반복합기업화 하는 것이다. 2009년 7월22일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인터넷TV(IPTV)법안들(이하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종합편성(중편) 채널을 확보했다. 한국 보수 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 신설과 경영을 위해 노력했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복합기업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SBS 의 경우 일반 복합기업화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는 어떤 형식으로도 더 커졌고, 시장의 규모는 한정되어있는 속에서 언론들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과거에는 정치권력의 비호아래 큰 노력 없이 이익을 향유하였다면,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된 현재에는 보수언론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화현상이 등장하게 된다. 이 측면에서 최순실 사건 보도가 TV조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2014년 최순실과 갈등을 빚게 된 고영태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 관련 제보를 받은 TV조선은 1년여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쳤고, 관련 내용을 특종 보도하였다.

최근의 정치적 사건으로서 세월호와 최순실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 분화는 매우 주목받을만한 현상이다. 최진봉(2016)의 연구를 보면 한국의 주류 방송들이 정파적 입장에 매여 재난보도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주류 방송사인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난보도가 지켜야 하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미흡함을 보였으며, 언론이 재난보도 과정에서 지양해야 하는 선정성과 오보·양산 등 재난보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TBC의 경우 주류 방송사들의 보도와 달리 재난보도 과정에서 사건 발생의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보도에 대한 김병진·이상은·양종훈의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 언론을 대표로 MBC와 JTBC의 보도행태를 비교하였다. 탄핵이 인용된 날부터 일주일

간 양 방송사의 저녁 종합뉴스의 아이템 수 변화, 주제의 편향성, 뉴스 프레임 등 3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JTBC와 MBC의 관련 보도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JTBC는 촛불집회 쪽에, MBC는 태극기집회 쪽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뉴스 프레임 측면에서 MBC는 탄핵인용 관련 보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는 태극기집회 참여자들 쪽에서, JTBC는 반대로 반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참여자 입장에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진·이상은·양중훈 2017).

이 같은 보도행태의 분화는 곧 정치적 이슈의 미디어 효과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사마다 보여주는 정치적 편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언론의 보도를 더 보게 된다. 결국 언론들은 자신들의 독자를 위해서라도 더욱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보도를 하게 된다. 실제 이소영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언론들이 채널별로 상당히 일관된 정파성을 가지고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JTBC, 보수신문, 진보신문은 모든 이슈에 대한 태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북정책·안보 이슈와 원자력발전 중단 이슈에 대한 태도 변화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 미디어에 선택적으로 빈번히 노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수적인 미디어 중에서는 보수신문이, 진보적인 미디어 중에서는 진보신문이 유권자의 태도를 정파적으로 극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미디어 채널로 나타났으며, 종합편성채널과 JTBC 또한 강한 태도변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2017).

기존 연구에서 언론의 보도 편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과 실제로 언론의 보도편향의 다양성이 생겨나게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향후 한국의 미디어 정치의 영향과 효과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속에서, 본 논문은 최순실 사건 보도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보도행태와 편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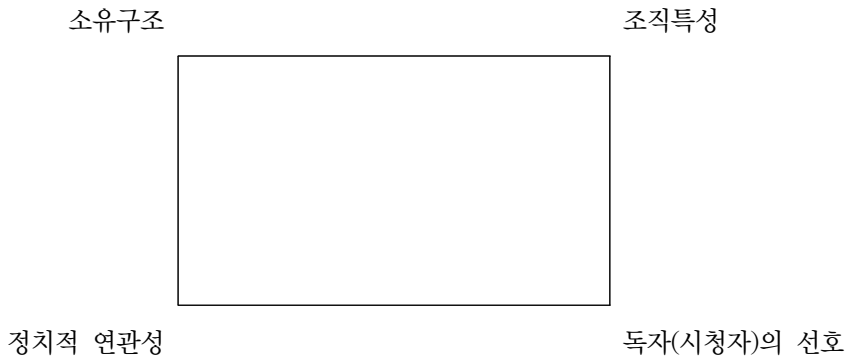
2. 분석의 틀과 가설

본 논문은 언론은 스스로 이익을 설정하고, 이익을 위해 보도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기본 가정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언론의 정파적 보도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는 정치적 연관성, 소유구조에 따른 경제적 이익 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의 보도행태로 인하여 형성된 개별 언론별 조직 특성을 꼽을 수 있고, 기존 언론의 소비자들의 선호를 영향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요인들은 서로 연계되어있고, 언론사마다 그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언론사별로 소유구조에 따라 그 이익의 설정자가 다를 것이다.

[그림 1] 언론의 보도방향 설정의 요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요인들의 작용에 의한 보도행태의 변화는 잘 느낄 수 없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율적으로 보도행태가 정해질 것이다. 하지만, 큰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다면 보도행태는 변화된다. 이 네가지 요인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 하나의 요인만으로도 보도행태가 변동될 수 있다. 이 요인들 중 하나의 요인이 경직적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도행태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언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보도행태를 변경할 수 있다. 시대 변동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도 있고, 정치적 연관성이 큰 정치세력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수도 있다. 때로는 광고를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 자신과의 정치적 연관성이 깊은 정치세력과도 갈등을 벌일 수 있다. 그 갈등의 수준이 고조되지 않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하기도 한다.

언론의 보도행태는 고정적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변동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화를 스스로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론은 자신의 보도행태를 결정하는데 깊이 연관되는 정치적 연관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트너들이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보도행태를 보이는가?

반대로, 자신들의 정파성과 반대의 정치세력과 경제세력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보도행태를 보일 것인가?

첫째, 정치적 연계와 기업과의 연계로 인한 정치적 편향을 가진 언론들은 자신들의 편향에 기반하여 이슈에 대한 방어와 공격의 보도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정파적 언론은 이슈에 대한 보도양의 차이가 클 확률이 높다. 공격하는 언론은 많은 보도를 생산할 것이고, 방어하는 언론은 우선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정치적 연계, 경제적 이익, 독자의 선호 변화, 이슈에 대한 조직내부의 이해와 결정에 따라 언론들은 기존의 보도 행태와 다른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기존의 보수 언론들 사이에서는 보도행태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매우 큰 정치적 사건이며, 그 파급효과에 따라 언론 자신들의 이익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과 보도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언론들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신들과 연계된 정당과 기업들과의 연계를 단절할 수 있고,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예상되는 기본적인 언론의 행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언론의 보도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III. 데이터와 연구방법

1. 데이터

본 논문은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최순실 사건과 연관된 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중에서 문자, 문서의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 성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앞으로 정치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대상 언론기사들은 2016년 3월 10일부터 탄핵일인 2017년 3월 10일까지 1년여 동안의 박근혜를 키워드로 검색한 기사들로서 주요 언론과 방송사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기사는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웹 크롤링(web crawling)으로 수집하였다. 최순실 게이트는 8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1년 동안의 일반적인 경향과 8월 이후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위기상황에서의 보도형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언론은 총 10개로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한겨레, MBC, KBS, JTBC, SBS 이다. 대표적인 보수, 중도, 진보 언론으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은 언론의 정파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박종희(2016)의 방식을 차용하였다. 최순실 사건에 대한 정당 간 태도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식 논평과 브리핑 자료를 수집하여, 두 당의 논평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기준으로 언론의 정파성을 측정하였다.

둘째, 언론의 보도행태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언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기사를 모으고 언론 보도의 정치적 편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언론의 정치적 편향이 기존의 보도행태와 다르고 같은지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원인을 추정하고자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진행기간 2018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현재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와 최순실 관련 사건의 기사를 작성한 사회부 기자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언론사 간부와 평론가 일부도 포함되었다. 전체 700명 이상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응답자는 65명이다. 언론사 형태별로는 일간지 종사자 35명, 지상파 방송국 6명, 종합편성 방송국 8명, 인터넷 언론사 11명, 주간지 4명, 월간지 1명이다. 취재경력으로는 5년 이상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3~5년 사이가 7명, 3년 미만인 12명이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정치적 이슈 특히 중요한 정치적 스캔들과 관련된 기사는 언론사별로 각기 정치적 연관성이 더 깊은 정당과 사용하는 어휘가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분석 방법으로 박종희(2016)의 방식을 차용하였다. 첫째, 여론 흐름의 동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한 주 단위로 정당과 언론사들의 정치적 경도를 새로 측정하여 해당 주에 각 언론사들이 기사에서 사용한 어휘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이 논평에서 사용한 어휘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였다. 둘째, 각 언론사들이 기사에서 사용한 어휘 중 1어절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겹치는 2어절, 3어절의 어휘와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겹치는 2어절, 3어절의 어휘의 사용 빈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분석 대상의 어휘는 개별 정당의 정파적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로서 특정 정당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들 중 한 주 동안 2번 이상 언급된 어휘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하는 어휘들은 한국어 정보처리 패키지인 KONLPY의 TWITTER 라이브리리를 이용해 형태소(morpheme)로 정제하여 사용한다. 형태소를 사용한 이유는 어휘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같은 의미의 단어 묶음들이 다르게 수집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는 같은 의미의 2어절 단어지만 형태소로 정제하지 않으면 다르게 수집된다. 형태소 분석 뒤 조사, 어미, 접미사, 관형사, 특수문자 등을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앞서 분석한 두 정당의 주차별 2, 3어절 어휘 묶음과 각 언론사의 어휘 묶음을 비교할 때 특정 정당에서 사용하는 어휘 묶음의 개수가 더 클 경우 겹치는 어휘도 더 많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겹치는 어휘 사용 빈도를 해당 정당의 어휘 묶음 개수로 나눠 주었다.

$$\text{언론 정치적 연관성 관측값} = \log \frac{(\text{자유한국당과 겹치는 어휘의 사용 빈도} / \text{자유한국당의 말뭉치 크기} + K)}{(\text{더민주와 겹치는 어휘의 사용 빈도} / \text{더민주의 말뭉치 크기} + K)}$$

log는 단조 증가 함수로서, 값이 +에 가까울수록 자유 한국과 유사한 어휘 사용이고, 값이 -에 가까울수록 더 민주와 유사한 어휘를 사용 한 것 이다. 중간에 특예의 값이나 이상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K를 더해줌으로서 평활화(smoothing) 처리하였다.

IV. 분석

1. 언론별 정당별 이슈 대응 빈도 분석

최순실 사건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스캔들은 시간이 갈수록 진정되지 않고,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 언론은 독자들의 관심, 소유구조, 정치적 연관성, 자신의 조직특성을 고려하여 보도태도를 정한다. 자신들이 불리한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언론이 처음 반응하는 패턴은 옹호기사 생산과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것 두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반대편 정파의 위기 상황에서 언론은 더 적극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여론을 주도하려고 할 것이다. 정당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겠지만, 언론은 더욱 다양하고 더 많은 내용의 기사를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는 정당과의 연계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1140개,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2098개로 2배에 달하는 논평과 브리핑 개수의 차이가 있다. 또한, ‘박근혜’를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공식논평과 브리핑 수는 1243개이고, 새누리당의 논평 수는 273개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59.2%에 달하는 논평이 ‘박근혜’와 관련 있었던 반면, 새누리당은 논평 중 23.9% 만이 ‘박근혜’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언론사별 기사의 수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언론사의 기사 차이는 각 언론사의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사건수의 차이로 해당 언론의 의도와 정치적 연계성

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슷한 역량을 갖춘 언론사들 끼리 기사의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가장 많은 기사를 만들어낸 곳은 15,916건의 기사가 작성된 JTBC 이다. 그 다음이 12,903건의 SBS 이며, KBS가 10,646 건이다. 신문사 중에는 유일하게 매일경제가 10,000건이 넘어서 10,162건의 기사를 생산했다.

방송국 중에 MBC는 5,405건으로 의도적으로 뉴스생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기사가 많이 생산되지는 않았다. 언론사 역량으로 보면 비교가 안되는 한겨레가 8,140건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보다 더 큰 역량을 갖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의 보도건수가 8000건이 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사를 많이 다루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 언론사 별 박근혜 관련 기사수

| | 기사수 |
|------|--------|
| 조선일보 | 7,901 |
| 중앙일보 | 6,221 |
| 동아일보 | 7,649 |
| 매일경제 | 10,162 |
| 한겨레 | 8,140 |
| 한국일보 | 5,917 |
| MBC | 5,405 |
| KBS | 10,646 |
| SBS | 12,903 |
| JTBC | 15,916 |

기사수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보면, 거의 모든 시기 가장 많은 보도를 한 언론은 JTBC로, JTBC가 사실상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여론을 주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관련 기사가 아래와 같이 언론사별 기사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과 신문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연관성이 강한 언론사별 보도건수의 차이가 커 보이는데 의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그럴 것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28명으로 전체 43.1%이며, ‘대체로 그럴 것이다.’로 응답한 인원이 23명으로 35.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원 중 78.5%가 기사건수의 차이가 언론사별 정치적 연관성과 연관된 의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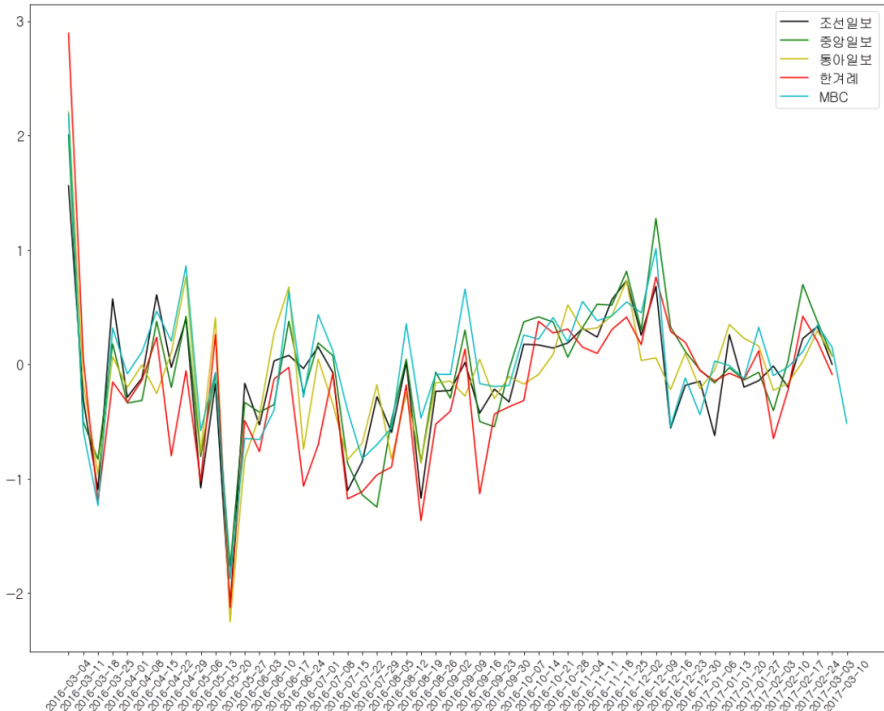
2. 시기별 언론의 정파적 연관성 변화

다음으로 시기별로 언론이 정파적 연관성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최순실 사건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각 사건별로 언론의 정파적 경도 값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각 언론사들의 판단이 각 정당과의 연관성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언론사의 개별적인 판단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의 판단과 언론의 판단이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여론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여론을 조사한 각 언론매체들의 측정된 정치적 연관성 값들의 평균으로 정의하였다. 언론매체별 정치적 연관성은 언론매체별 정치적 연관성 관측 값에서 여론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언론매체별 정치적 연관성 정도 = 언론매체별 정치적 연관성 관측 값 - 여론). 시기별 언론의 정치적 연관성 관측 값의 패턴을 살펴봄으로써 여론의 흐름과 함께 정파적 대응의 패턴도 일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 시기별 주요언론 정치적 연관성의 정도 변화

언론사별 정파성 관측 값



가독성을 위해 일부 언론사들만 차트위에 표기(다른 언론사들의 흐름도 몹시 유사)

시기별로 언론의 정치적 경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우선, 시기별로 편차가 있지만, 새누리당과 가장 가까운 보도행태를 보인 것은 MBC와 중앙일보이다. 2016년 6월 정운호 게이트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으로 발전되어가던 시기에 이를 방어하는 새누리당과 가장 가까운 보도를 한 것이 MBC와 중앙일보였다. 그리고 2016년 8월 16일 MBC에서는 우병우 수석을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에 대한 폭로 보도가 나왔다. 이시기 새누리당과 가장 가까운 정파적 보도를 한 것도 MBC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경도가 새누리당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으로서 이를 막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선일보는 2016년 4월 이후 새누리당과의 정치적 연관성이 사라진 보도를 지속해왔다. 이는 청와대와의 불화가 4월부터 본격화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보도를 한 것이 2016년 4월이 마지막이다. 탄핵시기를 제외하고는 조선일보는 2016년 4월부터는 새누리당과 정치적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는 보도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을 처음 제기하였고, 7월 26일 TV조선을 통해 미르재단 관련 폭로를 보도하였다.

세 번째, 각 언론의 정치적 연관성의 변화는 결국 여론의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보, 보수 언론 모두 정치적 연관성의 정도가 각기 시기별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는 각 시기별 여론에 기반하여 언론의 보도방향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 대표적인 진보, 보수 언론인 MBC와 한겨레는 자주 각 정당과의 연관성이 높은 보도를 하였지만, 전반적인 여론 흐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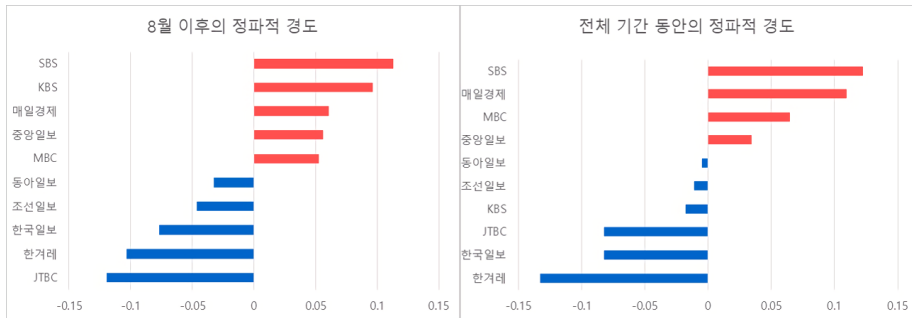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의 언론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따라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응답 중 22명(33.8%)이 ‘그렇 것이다.’, 38명(58.5%)가 ‘대체로 그렇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정치적 연관성에 따른 편차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완전히 거부하는 형태의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론의 흐름이 진보, 보수 언론 모두에 반영된 보도가 진행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언론사별 정치적 연관성

다음으로 언론사별 정치적 연관성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전체 1년간의 정치적 연관성과 최순실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2016년 8월 이후 보도에서의 정치적 연관성의 정도를 각기 따로 보여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는 8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26일, 조선일보는 TV조선을 통해 미르재단 관련 폭로를 최초로 보도하였고, 8월 2일, K스포츠재단의 비리와 미르와 K스포츠의 유사성에 대한 기사가 처음 보도되었다. 분석 기간 동안 수집된 90,860개의 기사들 중 72433개인 80%에 달하는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따라서 8월 이후의 정파적 연관성 정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정파적 연관성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기간동안과 8월 이후 모두 가장 보수적인 보도연관성을 보인 언론사는 SBS이다. 전체기간동안 보수적인 연관성을 보인 언론사들은 SBS, 매일경제, MBC, 중앙일보이다. 진보적 연관성을 보인 언론은 한겨레, 한국일보, JTBC,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였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는 기본적으로 보수언론으로서 연관성 정도의 값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 이는 민주당 편향이라기 보다 여론의 흐름에 따라 보도편향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언론사별 정파적 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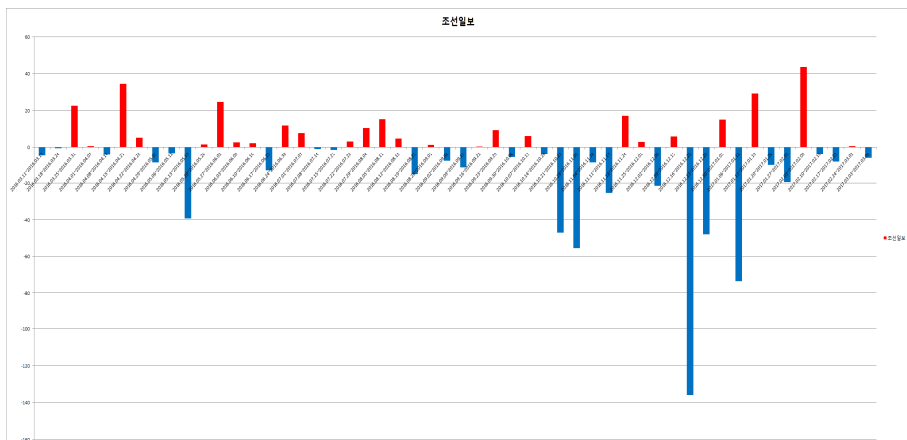
8월 이후 정치적 연관성 정도분석에서 보수적 연관성을 보인 언론은 SBS, KBS, 매일경제, 중앙일보 MBC 순으로 나타났다. 이 언론들은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 경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진보적 연관성을 보인 언론은 JTBC, 한겨레,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순으로 나타났다. JTBC와 한겨레는 최순실 사건에 대한 추적보도를 지속했고, 결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는 전개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언론사이다. 이 역할이 전체 보도편향 분석결과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한국일보는 원래 중도적 언론사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도 중도적 언론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일보의 보도 편향도 여론의 흐름에 따라 민주당 편향이 드러난 보도 흐름을 보여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수언론이지만, 대중의 여론 변화에 맞추어서 그 편향을 변경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전체기간 분석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 편향의 보도를 진행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언론사들의 정치적 연관성에 기반 한 보도행태가 언론사별 정파적 연관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사별 정파적 연관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기간동안 새누리당과 가장 연관이 있는 보도행태를 보인 것은 SBS, 매일경제, MBC 이며, 가장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는 매체는 한겨레, 한국일보, JTBC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분석결과가 해당 언론의 정치적 연관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반영한 것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22명(33.8%)이고, ‘대체로 반영한 것이다.’라고 답한 인원 32명(49.2%)이었다. 전체적으로 65명 중 54명(83%)가 각 언론사들의 정치적 연관성이 반영된 보도행태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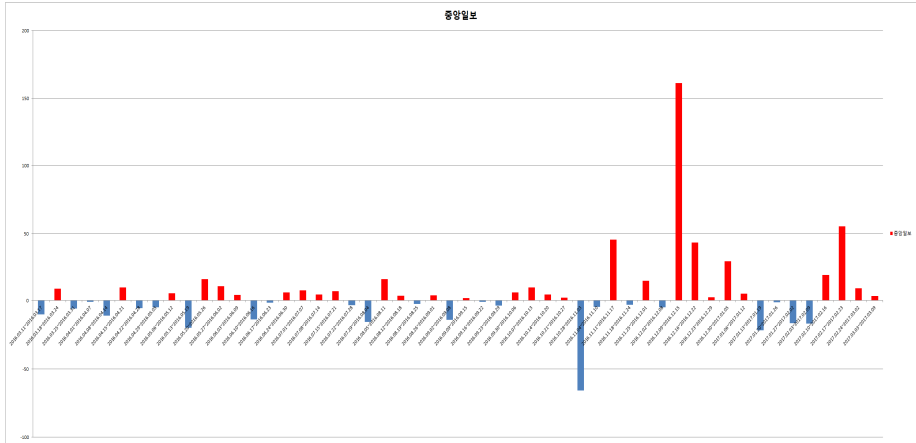
4. 보수 언론별 정파적 경도의 변화

앞선 분석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편향이 기대와 달리 민주당쪽으로 편향이 드러난 것은 예상외의 결과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수언론의 대표 주자였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각기 다른 보도편향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주별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주별 보도편향을 별도로 비교하였다.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각각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주별 보도편향을 보여준다. 이는 각 언론사의 정치적 연관성 정도에 기사수를 곱한 값으로서 주별로 보도의 편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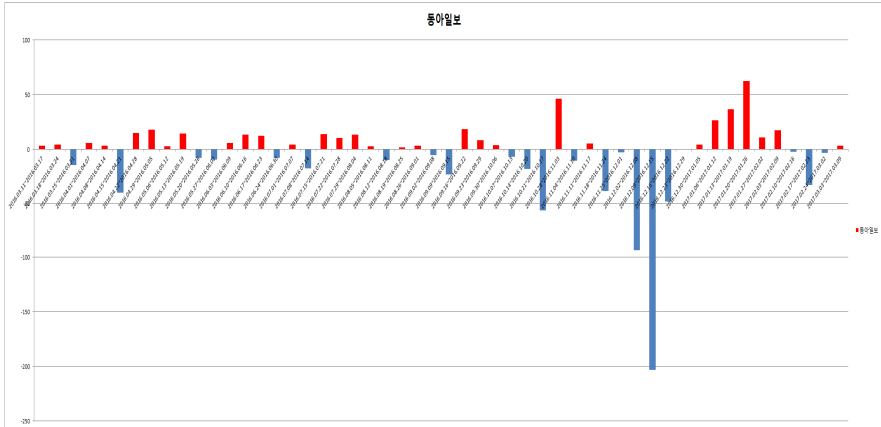
[그림 4] 조선일보의 주별 보도편향



[그림 5] 중앙일보의 주별 보도편향



[그림 6] 동아일보의 주별 보도편향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해 기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주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편향의 보도편향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나타났다. 보수 편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가 17주정도 되며, 민주당 편향의 보도를 한 경우는 24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을 통한 미르재단 500억 모금 지원 기사를 보도한 이후 더욱 분명하게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였고, 더불어

민주당과 유사한 어휘 사용을 보여주었다. 이런 흐름은 박근혜 정부와의 불화와 여론의 흐름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반면에, 중앙일보는 매우 분명하게 보수편향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사수도 가장 적다. 민주당 편향의 보도가 있긴 하였지만, 최순실 사건이 분명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보수적 색채가 더욱 강해지며, 기사수도 크게 증가한다.

앞서 살펴본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일보는 최순실 사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는 동안 9~10번째로 적은 보도를 하다 탄핵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5~8번째의 보도 숫자로 변화한다. 보수세력의 위기가 분명해진 속에서 조선일보와 달리 보수성향을 더욱 분명하게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의 말 지원 등 모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의 연관성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삼성과의 관계는 단순히 소유주의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광고로 연결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반영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JTBC의 태블릿 PC 특종 보도 이후 삼성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과 연관된 최순실 사건에 대한 비판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는 전반적으로 보도의 방향이 새누리당 편향인 주가 많지만, 기사수가 많지 않다. 반면에 탄핵 이후 민주당 편향의 기사수가 급증하였다. 중앙일보가 새누리당 편향의 보도를 많이 생산한 것과 정반대로 민주당 편향의 기사수가 탄핵이후 급증하였다. 이는 대중의 여론 흐름을 쫓아간 결과로 이해된다. 몇 주 후 다시 새누리당 편향의 보도가 주를 이룬 것과 잘 대비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같은 보수 언론이라도 각기 다른 양태로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원래의 정치적 편향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설문항을 언론인들에게 물었다. 첫째,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최순실 사건에 대한 보도 행태를 측정한 결과 각 언론들이 모두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보수언론의 보도패턴의 다양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는 26명(40%)은 ‘정치적 연관성의 유지와 단절에 대한 다른 판단.’이라고 응답했고, 두 번째로 많은

수인 13명(20%)이 ‘독자들의 선호에 대한 다른 판단’이라고 답했다. 세 번째는 10명(15.4%)이 ‘전체적인 국민여론의 흐름을 따른 결과’라고 답했다. 소유주의 판단의 결과라는 응답도 9명(13.8%)이 있었고, ‘광고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의 관계 고려’도 7명(10.8%)이 응답했다. 설문결과, 정치적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의견이고 그 다음이 독자들의 선호를 고려한 것이었다. 소유주의 판단과 기업과의 관계도 무시하기는 힘든 수준의 응답수가 나왔다. 언론의 보도행태가 정해지는데 있어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이해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치와 경제적 연관성에 중심을 두고 문항을 작성하였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SBS 세 언론사가 가장 보수적인 보도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이 정당과 기업과의 연관 중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라고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정당(정부)과 기업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였고 전체 39명(60%)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12명(18.5%)이 ‘기업과의 연관성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언론인들의 의견에서도 보도경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연관성과 기업과의 관계가 많이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중앙일보, 매일경제,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최순실 사건에 대한 보도의 방향을 설정할 때 국민의 여론도 고려하였지만, 정치적 연관성과 기업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보도행태가 정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언론의 최순실 사건에 대한 보도행태의 다양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정치에서 언론은 객관적 정보전달자라기 보다 정치세력과 함께 연관된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가장 큰 정치적 스캔들이었던 최순실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의 언론사별 보도행태의 차이와 그 다양성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기 다른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식 브리핑과 논평에서 사용된 어휘들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동안 한국 언론은 정치적 편향에 많이 노출되어 정권의 성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으로 인해 정치적 행위자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한국 언론의 보수 편향성을 더욱 증가되었었다. 하지만,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까지 탄핵이 되고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보수는 위기를 맞았고, 보수적인 언론도 이 위기에 대응해야했다. 이 대응에서 각 언론들은 각기 다른 패턴을 보인다.

분석결과, 분석대상 언론 중 가장 보수적이며 새누리당과 연계된 편향성을 가진 언론은 SBS 로 나타났다. 가장 진보적이며 민주당 편향성을 갖는 언론은 한겨레와 JTBC이다. 그리고 각 사건에 대응하는 보수언론의 패턴은 예상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의 여론 흐름을 쫓아서 보도편향을 바꾼 언론도 등장하였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언론으로 인식되어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편향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진보언론의 대응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진보가 위기상황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말기의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 진보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된 언론의 보도편향과 보수언론의 보도편향을 비교분석해봄으로서 좀 더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정치분석 시도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언론과 정당들의 정치적 어휘 분석, 정치적 어휘의 실질적인 의미와 그 시대별 변화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신. 2007. “정권의 성격변화와 언론보도.”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3권 1호: 156-196.
- 김병진·이상은·양종훈.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편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11호: 554-566.
- 김승수. 2003. “언론권력의 정치경제학: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의 사례분석.” 『한국언론학보』 22호: 39-75.
- 박종희. 2016. “세월호 참사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제1호: 239-269.
- 윤영철. 2000. “권력 이동과 신문의 대북 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 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 27호: 48-81.
- 이소영. 2017.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미디어 효과.”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권 4호: 1-29.
- 최진봉. 2016. “방송 뉴스의 재난보도 콘텐츠에 대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12호: 539-550.
- Altschull, Herbert J. 1984. *Agents of Power: The Role of the News Media in Human Affairs*. New York: Longman.
- Curran, J. 1990. “The new revisionism in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 reappraisal.”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5: 135-164.
- Hall, S., Critcher, C., Jefferson, T., Clarke, J., and Roberts, B. 1978. *The social production of news*. na.
- Hall, S. 1979. “Culture, The Media and Ideological Effect.” in J. Curran et al. ed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Haverly Hills: Sage. 315-348.
- Hallin, Daniel. 1994. “From Vietnam to the Salvador : Hegemony and Ideological Change.” *We keep America on Top of the World*. London: Routledge Press, 58-86.

- McNair, B. 1994. *News and Journalism in the UK: A textbook*. London: Routledge.
- Park, Eunjeong and Sungzoon Cho. 2014. “KoNLPy: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 Cognitive Language Technology.

The Varieties of Newsgathering and Processing Activities of Korean Press: Focusing on Choi Soon-Sil Scandal

Sungwoo Lee*· Hojoon Lee**· Byungkun Lee***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newsgathering and processing activities of Korean Press about Choi, Soon-Sil Scandal, a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using Text mining technique and specialist survey for journalist's opinions. Many Korean people have realized that the press in Korean Politics is important actors linked to particular political groups rather than objective reporter, and that the press in Korean Society linked to conglomerates because of their profits as a company. As a result of an analysis, this article finds that SBS, private broadcasting, is the most conservative press linked to the Saenuri Party(conservative party), whereas two progressive presses are Hangyoreh shinmun, JTBC linked to the Democratic Party(progressive party). We find very various newsgathering and processing activities of conservative presses. Also, many presses changed their positions about the political issues according to major public opinions. Especially, this article finds that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Dong-A Ilbo, three major conservative presses, took a very different positions about Choi, Soon-Sil Scandal. And, we find that many presses make different positions about political economic issues based on the political connections and relationship with big business. Based on the result, this article shows the need of researches about relationship between the newsgathering and processing activities of Korean Press and Political Parties and Big businesses.

Keywords : The Press, Political Scandal, Text Mining, Report Behavior of Press

투고일: 2018.04.06. 심사일: 2018.04.10. 게재확정일: 2018.04.20.

* Korea University

** Korea University

*** Korea University